

커뮤니티디자인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방화 5·6단지 커뮤니티디자인을 사례로

정문수

커뮤니티디자인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방화 5·6단지 커뮤니티디자인을 사례로

2012



Ⅰ 연구진 Ⅰ

연구책임 정 문 수 • (사)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 연구팀장
연구원 김 연 금 • 조정작업소 '울' 소장
박 영 석 • (사)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 연구원
정 유 진 • (사)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3. 연구의 분석틀	8
II. 방화 5·6단지의 현황	13
1. 방화 5·6단지의 개요	13
2. 방화 5·6단지의 공간사	14
III. 커뮤니티디자인과 공동체 활동	19
1. 커뮤니티디자인의 계기와 발전	19
2. 복지관 옥상녹화사업과 숲속도서관	23
3. 난마마	46
4. 북카페	56
5. 다소니	67
IV. 커뮤니티디자인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희망	79
1. 커뮤니티디자인의 성과	79
2. 커뮤니티디자인의 한계	81
3. 커뮤니티디자인의 모색, 그리고 희망	82
참고문헌	87

표 목 차

〈표 1-1〉 인터뷰 방식 및 대상	8
〈표 2-1〉 방화 5단지과 6단지의 연령별 인구 비중	14
〈표 3-1〉 복지관 운영 커뮤니티디자인별 특성	22
〈표 3-2〉 숲속도서관의 약사	23
〈표 3-3〉 숲속도서관의 특성	32

그림 목 차

〈그림 1-1〉 커뮤니티디자인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과정	9
〈그림 1-2〉 연구의 내용	10
〈그림 3-1〉 방화 5·6단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56선	20
〈그림 3-2〉 방화 5단지 한평공원	20
〈그림 3-3〉 방화 6단지 한평공원 : 삼정초교 어린이 통학로	21
〈그림 3-4〉 복지관 커뮤니티디자인의 체계	23
〈그림 3-5〉 우리마을읽기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마을 마인드맵’	27
〈그림 3-6〉 디자인 샐럿 프로그램	28
〈그림 3-7〉 디자인샐럿을 통해 제시된 세 가지 대안	28
〈그림 3-8〉 주민참여 디자인 장터	29
〈그림 3-9〉 최종디자인안	30
〈그림 3-10〉 숲속도서관 개소식	31
〈그림 3-11〉 북카페 개소식과 이용모습	58
〈그림 3-12〉 북카페의 문화프로그램	60

I .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의 분석틀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에 위치한 방화5·6단지(이하 방화5·6단지)는 분양 목적의 5단지(이하 5단지)와 영구임대·공공임대 목적의 6단지(이하 6단지)가 반반씩 함께 조성된 2천 세대 수준의 아파트단지이다. 이 지역은 80년대 말 노태우 정부 시절 이른바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던 방화와 개화 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 지역의 일부이다. 특히 방화5·6단지는 정부지원으로나마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분양아파트 사람들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 혜택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임대단지 사람들을 함께 모여 살게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낳았다. 특히 1994년 입주 당시부터 임대아파트 주민과 분양아파트 주민 사이에, 혹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임대주민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복잡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거나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 사회적인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단지에 모여 살면서 지역사회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술에 취한 주민들의 행패, 지역 청소년에 대한 방치, 임대단지와 분양단지 주민들 간 미묘한 갈등과 같은 문제가 지역사회에 집적되고

있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일부 실제적인 노력도 진행되었는데, 그중 방화6종합사회복지관과 도시연대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진행한 커뮤니티디자인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2008년부터 방화5·6단지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공동체활동을 뿌리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가 전개되었다. 방화5단지과 6단지 사이의 중앙화단을 커뮤니티 장소로 조성하려고 시도하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기도 하고, 방치되어 있던 복지관 건물 옥상을 어린이를 위한 숲속놀이터로 조성하기도 하며, 단지 내에 두 곳의 한평공원을 조성하는 등 여러 커뮤니티디자인을 진행하고 중요한 성과와 의미있는 변화를 얻어내기도 했다. 2010년에는 6단지상가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여행(女幸) 북카페’와 주민모임공간인 ‘다소니’를 조성하여 방화5·6단지 주민과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장소로 활용하는 등, 구체화된 노력의 결실로 커뮤니티장소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확보된 공간이 주민 사이의 연결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방화5·6단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여러 커뮤니티디자인 과정이 진행되고 방화5·6단지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과연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인식 차원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맥락에서, 진행되는 커뮤니티디자인의 역할을 성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방화5·6단지의 커뮤니티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협력과정과 역할을 분석하여,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커뮤니티디자인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관심은 커뮤니티디자인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위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가는 과정을 탐구하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적 논의와 경험이 지역사회 자체와 지역사회에 내재한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공동체를 통해 어떠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지 이해하는데 있다.

첫째, 커뮤니티디자인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디자인하고 구축하는 사업으로 간주하기 보다, 사회적인 변화, 인식론적 변화와 서로 관련되어 상호작용하는 연쇄적인 흐름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둘째,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과 집단들이 커뮤니티디자인 과정에서 구체적인 갈등의 계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면서 합의에 도달해 왔는지를 중시한다.

셋째, 구체적으로 활동했던 행위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했고,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한 커뮤니티디자인 과정의 경험이 개인과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방화5·6단지의 공동체활동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 중인 지역주민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어떠한 계기로 공동체활동에 참여했고, 공동체가 구성되고 변화했던 과정의 구체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개인과 집단적 차원의 경험과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이러한 활동의 참여경험을 통해 어떠한 태도와 관점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단편적인 사건 자체 혹은 사건의 단순

한 나열이 아니라 각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와 개별 사건 간의 맥락적인 관계를 파악하면서, 공동체가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구성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진술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건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맥락을 점검한다. 즉, 이 글은 질적 면접을 통해 파악한 행위자들의 지식과 견해, 해석, 경험을 비롯하여, 행위자 간의 의사소통과정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을 연구의 중요한 지식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차원의 지식들이 형성된 애초의 원인과 계기를 파악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공동체활동에 참여했던 여러 행위자들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이 종종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 사건의 전후 관계와 맥락이 서로 상이하기도 한다. 반면, 개별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주관적인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언어의 이면에 사회적이고 맥락적인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심층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¹⁾도 발전해 왔다. 즉, 연구대상으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진술에서 드러나는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의 과정을 점검하면서,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인간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 즉 인간의 인식체계가 주관적이고 편향적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주관성의 지평에 놓인 수많은 가능성과 계기들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점검하면서, 그 이면에 놓인 사회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점이다. 여기서 핵심은 왜 인간은 사회의 역사와 진실을 자신이 기억하는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식적 세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1) Andrew Sayer, 1992, "Knowledge in context", *Method in Social Science : A Realist Approach*, Routledge, pp.12-44

고유한 논리의 구조와 양식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서사를 중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서사적으로 탐색하면서 삶의 과정과 계기를 해석하고 생애에 의미를 부여한다²⁾. 서사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따라서 서사를 현실세계에 대한 고유한 재현으로 보고, 이를 통해 현실세계의 전후관계와 맥락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지식을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행위자들과 접촉하여 대화하고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과 판단을 이해하고, 이들이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설명하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며, 이들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면서 함께 생산하는 지식 형성 과정에 참여한다.

셋째, 인간의 경험과 인식이 단편적일 수도 있고, 혹은 판단과 결정의 계기에 편견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특히 개별적인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서사는 개인의 주관에 강하게 피력하는 일방적인 발화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이 각자 편린의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 개별 진술도 경청해야 하지만, 당시에 참여했던 이들을 함께 집단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유용할 경우가 많다. 집합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은 개별적인 서사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측면을 보완한다. 즉, 부족하게나마 사건과 맥락이 진행되었던 과거의 상황을 경험으로부터 재구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입장 및 이해관계와 집합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Alasdair MacIntyre, 1981, *After Virtue*, p.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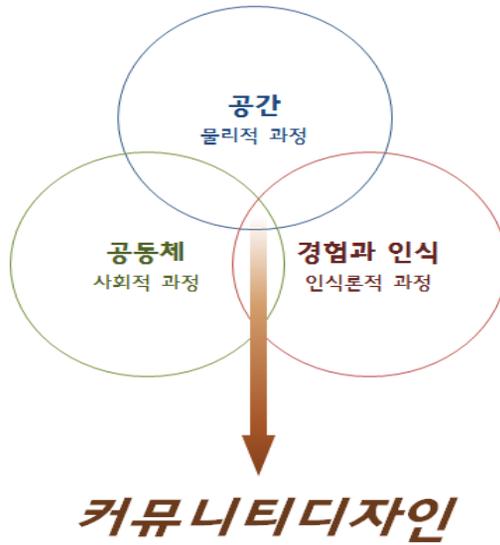
〈표 1-1〉 인터뷰 방식 및 대상

인터뷰 기간	▶ 2012년 7월 10일 ~ 2012년 8월 29일 (총 12회, 25인)	
인터뷰 형식	▶ 집단·공동체 별 면대면 심층인터뷰	
인터뷰 대상	복지관 - 5인, 총 6회	▶ 복지관 책임자 2인(김성미 관장, 박경원 부장) ▶ 담당 실무진 3인(이하나, 하정민, 이은주 사회복지사) ▶ 이직자1인
	도시연대 실무진 - 1명, 1회	▶ 김은희 사무처장
	공동체 별 - 19인, 5회	▶ 하모니 3인(가족) ▶ 숲속지기 3인 ▶ 다스니 4인 ▶ 북카페 4인 ▶ 난마마 5인

3. 연구의 분석틀

1) 연구의 개념

이 연구는 물리적 세계(공간), 사회적 세계(공동체), 인식론적 세계(경험과 의미)라는 서로 상이한 세 가지 차원을 단순히 구분하고 병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디자인 과정을 통해 촉발된 공간의 변화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의 삶과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며 경험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은 단순히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보다 물리적인 공간환경의 변화 과정과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인식과 경험, 판단의 과정 간의 상호관계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 시킨다.



〈그림 1-1〉 커뮤니티디자인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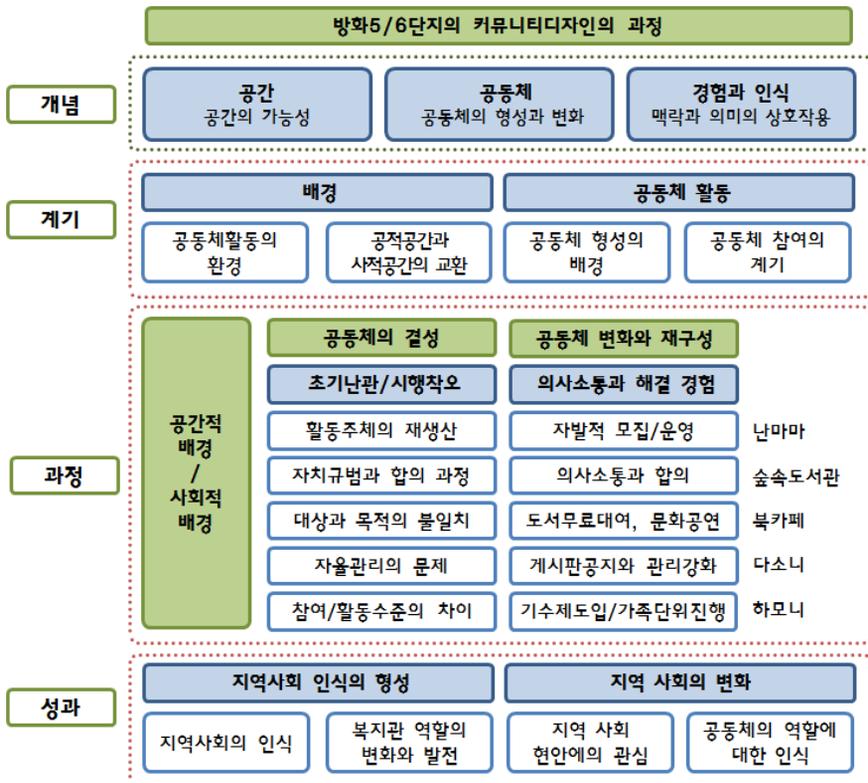
물리적 과정으로서 공간은 수단적이고 공허한 곳이 아닌 사람과 집단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실험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장소로 이해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디자인과 같은 의도와 계획에 의해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교감하고 의사소통하면서 함께 실천해 가는 적극적 행위를 강조한다.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회적 교류와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꾀하는 ‘공간만들기’의 과정을 중시한다.

사회적 과정으로서 공동체는 다양한 가치와 정체성, 배경에서 출발한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의 이해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연결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합의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또 대화와 설득으로 조정하는 가운데 ‘만들어가는’ 과정과 경로가 중시된다.

인식론적 과정으로서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과 의미, 그리고 집합적으로 경험

하게 되는 경험과 의미의 차원을 커뮤니티디자인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이해한다. 지역사회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건과 계기에서 이야기가 구성되고 맥락이 연결되는 서사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녀육아와 보육,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와 같이 인간의 성장이라는 생애사적 과정에서 충분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의도적으로 무시되던 사적영역이 공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연결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2) 연구의 설계



〈그림 1-2〉 연구의 내용

II . 방화 5 · 6단지의 현황

1. 방화 5 · 6단지의 개요
2. 방화 5 · 6단지의 공간사

III

방화 5·6단지의 현황

1. 방화 5·6단지의 개요

방화5·6단지는 1989년 서울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여 1994년 완공된다. 이 중 5단지(1,378세대)는 일반분양 목적으로 개발되어 주로 전세 및 월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6단지는 공공임대(404세대)와 영구임대(596세대)가 혼합된 1,000세대의 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 국가유공자, 철거세입자, 임시이주자 등이 입주하고 있다. 방화5·6단지는 하나의 단지처럼 설계되어 있으나, 필지소유와 아파트 관리는 단지 중앙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방화5단지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30대 주민이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0대와 40대의 인구비중도 각각 18.0%와 16.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인구비중이 높다. 게다가 대략 30대 연령의 자녀세대인 영유아와 어린이로 구성된 10세 이하 연령세대의 비율도 13.0%를 차지하고 있어 방화5단지가 영·유아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화6단지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17.4%를 차지하여 단지의 인구고령화가 중대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40대와 50

대의 인구비율도 5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 5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의 평균연령대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단지 내의 30대 인구 비율은 11.3%로 5단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10세 이하 연령도 4.6%에 불과하여 젊은 부부들과 이들 자녀의 단지 내 비율은 6단지 인구의 연령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표 2-1〉 방화 5단지과 6단지의 연령별 인구 비중

구 분	10세 이하	10-20세 이하	20-30세 이하	30-40세 이하	40-50세 이하	50-60세 이하	60세 초과	전체
5 단지	362 (13.0)	304 (10.9)	499 (18.0)	720 (25.9)	459 (16.5)	252 (9.1)	181 (6.5)	2,777 (100.0)
6 단지	117 (4.6)	354 (13.9)	500 (19.6)	288 (11.3)	491 (19.2)	358 (14.0)	443 (17.4)	2,551 (100.0)

출처 : 2010년 대한민국인구주택총조사

2. 방화 5 · 6단지의 공간사

방화5·6단지의 경계에는 ‘56선’이라 불리는 노랑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중앙화단과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과 함께 두 단지를 구분짓는 ‘경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간의 상대적인 배제와 빈곤문제가 있었으며, 지역의 주폭 문제, 근린에서의 규범과 질서 문제, 지역 청소년에 대한 방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역사회에 집적되고 있었다.

방화5·6단지는 복지관과 중앙화단, 그리고 56선이라 불리는 노란페인트 흔적을 경계 삼아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암묵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실제로 중앙화단을 중심으로 말뚝을 박았던 사건도 있었고, 56선의 흔적, 방치되어 근린 질서를 해치는 단지내 공원 환경, 6단지 상가의 장기 미임대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의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었다.

복지관¹⁾은 경험을 통해 임대단지와 분양단지 내 주민 간 갈등²⁾을 인지하고 지역주민의 변화 없이는 지역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복지관은 지역복지팀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일대일 주민만나기’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이 파악되었으나, 이들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내가 아닌 제3자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등 수동적 입장이었다. 때문에 주민이 지역사회문제를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복지관은 2006년 ‘우리 마을 작은 기적 만들기’ 사업³⁾을 통해 지역 내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였다. 주민참여는 주민 소모임을 만들어내고 2008년에는 이들 소모임의 핵심주민들이 중앙화단을 제거하고 주민광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준비과정이 이루어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
- 1) 2008년 9월 (사)꿈희망미래재단이 수탁하기 이전의 복지관은 주로 1994년 개관이후,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대상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에는 학교사회복지, 새터민,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지역사회중심의 전문서비스를 개발·실천해왔다.
 - 2) 실제로 2008년 지역주민 인식조사(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08,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방화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시의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경제적 차이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심화’(29.8%), ‘어르신의 소외감, 우울감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약화’(12.9%), ‘지역주민의 낮은 자존감으로 무기력한 삶’, ‘지저분한 주변환경 문제’(11.5%)라고 인식했다.
 - 3) 이 사업은 아동의 마을기적, 청소년의 마을기적, 어르신의 마을기적, 지역공동체의 마을기적 등의 영역별 활동으로 구분되었다.

III . 커뮤니티디자인과 공동체 활동

- 
- 
1. 커뮤니티디자인의 계기와 발전
 2. 복지관 옥상녹화사업과 숲속도서관
 3. 난마마
 4. 북카페
 5. 다소니

III

커뮤니티디자인과 공동체 활동

1. 커뮤니티디자인의 계기와 발전

복지관이 도시연대와 함께 방화5·6단지의 커뮤니티디자인을 구상하게 된 것은 2008년부터이다. 도시연대가 그동안 한평공원과 어린이공원, 어린이통학로 등 커뮤니티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자산과 경험, 방법을 확보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커뮤니티장소 거점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활동의 경험도 축적하려고 하였다. 애초에 복지관과 도시연대가 함께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은 5단지와 6단지의 경계에 위치한 중앙화단을 단지 내부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획이었다. 중앙화단을 주민광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커뮤니티디자인 사업은 환경변화를 통해 지역통합을 이루고자 했으나, 5단지 주민 일부가 향후 아파트 재개발 시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여 중단되었다.

이에 복지관은 지역주민의 통합을 위해 다른 형태로 이것을 대체할 연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환경변화로 인한 지역에 대한 관심, 매개를 통한 참여,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주민통합 과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민통합 과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과 지속성, 안정성을 담보한 자원으로 서 네트워크가 필요했으며, 복지관은 커뮤니티디자인을 통해 이를 이루고자 했다.

당시 도시연대가 커뮤니티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확보했던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논의하면서, 당시 방치되어 있던 복지관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즉, 복지관 옥상에 녹화사업을 진행하여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복지관 옥상녹화사업’이 시작되면서 단지에 커뮤니티디자인이 처음으로 시도된다.



〈그림 3-1〉 방화5·6단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56선



〈그림 3-2〉 방화 5단지 한평공원



〈그림 3-3〉 방화 6단지 한평공원 : 삼정초교 어린이 통학로

복지관이 ‘커뮤니티디자인사업’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환경변화를 매개로 지역통합을 이루고자 했던 중앙화단 개선사업이 무산됨으로서 이를 대체할 만한 연속적인 활동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방화5·6단지 거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에 의한 변화와 지역통합을 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복지관이 중앙화단 개선사업을 대체할 사업을 찾던 시점에 도시연대에서 옥상녹화사업을 제안하였고 복지관은 이에 응하게 되었다. 도시연대와 복지관은 옥상녹화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임대단지과 분양단지 간의 주민 갈등 해소와 지역통합이라는 복지관의 목적과 임대·분양아파트 주민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만들기라는 도시연대의 목적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관의 주민 소모임과 문화컨텐츠, 도시연대의 지역활동가와 외부기금은 파트너로서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옥상녹화사업 이후 도시연대와 복지관

은 한평공원 I(5단지 내 주민쉼터), 상가리모델링, 한평공원II(삼정초교 어린이 통학로) 등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SH공사의 여행(女幸)북카페, 숲속도서관 재개관 사업도 커뮤니티디자인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복지관에 의한 커뮤니티디자인은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도에 의한 변화와 지역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간디자인(도시연대), 문화디자인(복지관), 지역디자인(지역주민)으로 그 영역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초기과정에서 역할과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함께 연대하는 것으로 커뮤니티디자인을 구상하였다. 이에 복지관은 지역 내 주민 소모임 자원과 문화컨텐츠 개발 및 실행능력을 통해 문화디자인 역할을 담당하고, 활동가로서의 전문회원과 일반회원 그리고 공간 공사비용 외부기금 확보능력이라는 자원을 갖춘 도시연대는 공간디자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정하였다. 복지관의 커뮤니티디자인사업은 문화디자인과 공간디자인의 균형 있는 진행을 통해 지역주민에 의한 변화와 지역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1〉 복지관 운영 커뮤니티디자인별 특성

구분	출발시기	사업유형	활동주체	활동공간	활동내용과 방식
숲속도서관	2009.10 개관 2011.11 재개관	공간기반	숲속지기	숲속도서관 (복지관 옥상)	영유아 자녀와 어머니 도서관사서 자원봉사활동
북카페	2010.5	공간기반	일반주민	북카페 (6단지상가 1층)	지역주민 간 교류와 접촉 소통 중심의 느슨한 네트워크
다소니	2010.3	공간기반	자발적 소모임	다소니 (6단지상가 2층)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네트워크
난마마	2010.3 1기 모집 2011.3 2기 모집	활동기반	난마마	복지관 지하강당 외	공동육아를 위한 품앗이 활동
하모니	2010.4	활동기반	하모니	복지관 지하강당 외	하모니카 가족연주단



〈그림 3-4〉 복지관 커뮤니티디자인의 체계

2. 복지관 옥상녹화사업과 숲속도서관

1) 커뮤니티디자인의 배경

애초에 복지관에서 커뮤니티디자인 사업의 대상으로 물색했던 장소는 단지 내의 중앙화단이었다. 단지의 중앙화단은 방화5단지과 6단지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5단지과 6단지를 법적으로 분할하는 재산권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또한 두 단지의 아파트관리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단지처럼 설계되어 있는 방화5·6단지 간의 소유와 관리의 문제가 민감하게 잠재해 있다.

〈표 3-2〉 숲속도서관의 역사

시 간	내 용
2009년 3월	'복지관옥상녹화사업' 커뮤니티디자인 시작
2009년 7월	숲속도서관 개소식
2009년 10월	숲속도서관 개관
2010년 11월	재개관 : 중고도서 및 시설 기부 - 직수사업으로 옥상 물탱크실을 제거하고 열람실 확보
2012년 3월	복지관 담당 실무진 이한나 팀장에서 하정민 복지사로 변경

아파트관리실에서 5단지와 6단지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임의로 노란 페인트로 칠해놓으면서 만들어진 분할선은 지역사회에서 ‘56선’이란 별칭으로 불리면서 5단지와 6단지 사이의 심리적 경계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로 인식되었다. 중앙화단에서부터 ‘56선’, 그리고 복지관 건물에까지 이어지는 가상의 선은 5단지와 6단지를 법적으로 분할하는 재산권의 경계이자, 두 단지의 아파트관리소 관리의 경계였다. 두 단지 주민들의 미묘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경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지리적으로 구별짓게 하는 인식을 형성해 왔다.

이에 복지관은 도시연대와 함께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중앙화단을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5단지와 6단지 주민 간 공동체형성과 교류를 매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커뮤니티디자인 사업을 시도하였다.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조직인 ‘어울림1)’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디자인 대안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의 5단지 일부 자치위원의 돌연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이 반대한 것은 방화5·6단지에 걸쳐 있는 중앙화단이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될 경우 향후 민간소유로 되어 있는 방화5단지가 미래에 재개발될 시 SH공사 소유의 6단지와 토지의 법적 경계가 불명확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5단지의 일부 주민자치위원이 중앙화단의 커뮤니티공간 활용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복지관과 도시연대는 중앙화단 커뮤니티디자인 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단지 내 다른 곳에 커뮤니티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게 된다. 이에 새로운 장소로 모색된 곳이 방치되어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던 복지관 옥상공간이었다. 당시 복지관 건물의 옥상은 일부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잡다한 물건이 적치된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쇄된 공간이었다.

1) 2011년 단체의 권력화, 신규회원 입회 불가 등의 문제로 조직이 와해되었다.

복지관과 도시연대는 기존 중앙화단을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옥상공간으로 대상지가 변경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방안을 찾고자 했다. 이는 중앙화단이 주민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주요동선에 위치한 것과는 달리, 복지관 옥상공간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곳으로 일정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과 같이 특정계층 대상으로 구체화된 목적을 지닌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적절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2) 커뮤니티디자인의 과정

2008년, 새로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된 『꿈·희망·미래재단』과 도시연대는 2009년에 복지관 옥상공간을 한평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09년,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는 디자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던 ‘커뮤니티장소만들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당시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로 하여금 복지관 옥상녹화 커뮤니티디자인 과정에 전문가로 직접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 1·2차 주민간담회

2009년 4월 2일, 복지관 회의실에서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지주민들에게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후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당시 옥상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제기되었으며, 상시적으로 폐쇄하거나 복지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에만 잠시 개방하는 현재의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당시 1차 간담회에서 옥상을 어린이를 위한 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월 22일, 2차 간담회는 복지관 1층의 부설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향후 활용방향을 논의하였다. 간담회를 주관했던 복지관은 옥상사업의 이용대상을 복지관을 이용하는 소모임 구성원과 어린이로 제시했으며, 도서관과 생태체험장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독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옥상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 난간추락방지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최우선으로 고려
- ㉡ 좁고 위험한 옥상 출입구 개선 등 어린이 사고위험에 대한 조치
- ㉢ 인근 개화산에서 자생하는 들꽃을 비롯한 지역식물의 학습장소로 활용하고 응달샘을 형상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태체험 방안 제시
- ㉣ 옥상의 어둡고 칙칙한 벽면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작품으로 조성하는 등 재정비

(2) 대상지답사와 ‘우리마을읽기’ 프로그램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는 디자인문화재단 ‘커뮤니티장소만들기’ 교육수강생들과 함께 옥상녹화사업의 대상지인 방화5·6단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교육수강생과 지역주민, 어린이들은 함께 직접 답사팀을 구성하여 사업대상지인 복지관 옥상을 비롯하여 복지관 주변과 단지를 답사하면서 지역사회의 현황과 대상지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답사팀은 단지 답사를 마치고 4개의 조로 나뉘어 ‘마을 마인드맵(mind map)’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각 조의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와 어린이, 그리고 교육수강생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는 마을에 대한 상상과 이미지를 서로의 언어로 표현해보고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생각을 서로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커뮤니티디자인의 전문가로 참여한 교육수강생들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지역주민을 이해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현황을 이해함으로써 주민들이 커뮤니티디자인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외주였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디자인이 벌어지는 지역사회를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서 물리적인 시설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의 맥락에서 배치됨을 이해하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관과 도시연대가 옥상녹화사업과 숲속도서관의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 진행의 맥락에서 기획되었지만, 단지 내의 노후화되고 심각한 안전문제를 지니고 있는 시설들을 파악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즉, 향후 방화5단지 내의 주민공원과 초등학교들이 방화6단지과 삼화초등학교 사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통학로 등에 한평공원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제공된 것이다. 이는 실제로 방화5단지 한평공원과 6단지 한평공원 사업으로 이어진다.



〈그림 3-5〉 우리마을읽기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마을 마인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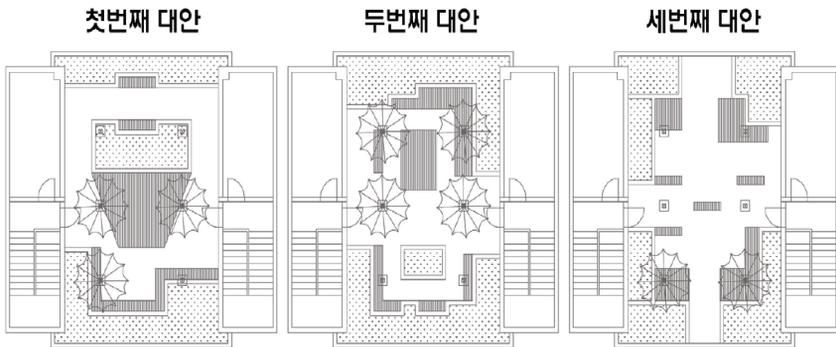
(3) 숲속도서관 디자인 샐릿 프로그램

총 2차로 진행된 숲속도서관 디자인 샐릿 프로그램은 커뮤니티디자인의 전문가로서 참여한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차 디자인샐릿에서는 ‘참여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강의와 커뮤니티디자인의 주제와 테마 찾기, ‘우리마을읽기’ 프로그램에서 만든 마인드맵 검토하기, 카드게임을 통한 테마결정 등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림 3-6〉 디자인 샤렛 프로그램

2차 디자인샤렛에서는 교육수강생들이 실제 커뮤니티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할을 맡으면서,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상지의 특성과 커뮤니티디자인의 과정, 대상지에 적용가능한 디자인들을 논의하며 구체화된 대안을 직접 구상하는 과정을 가졌다. 1차와 2차 디자인샤렛을 통해 숲속도서관에 적용가능한 3가지 디자인 안이 도출되었다.



〈그림 3-7〉 디자인샤렛을 통해 제시된 세 가지 대안

(4) 주민참여 디자인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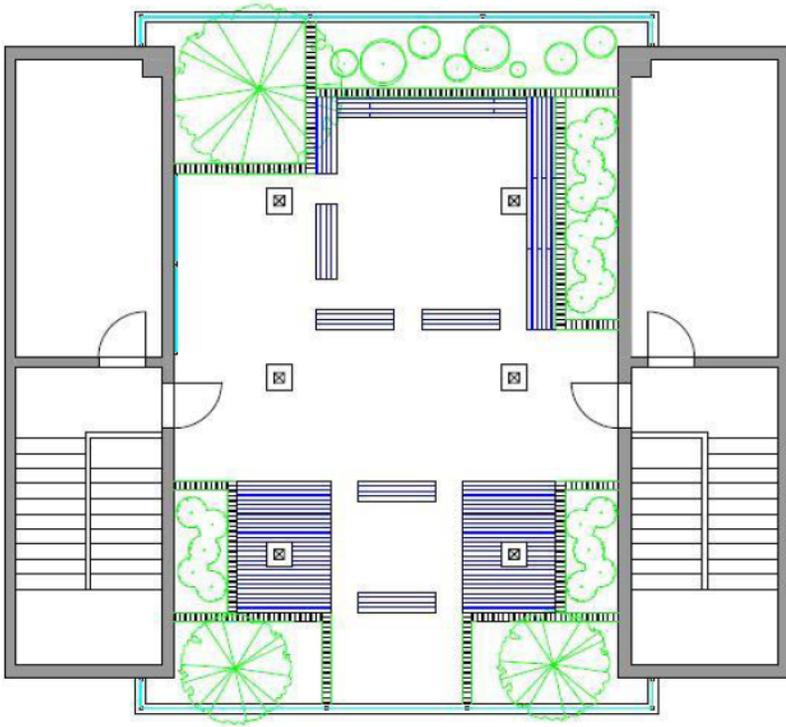
5월 23일, 복지관 앞에서 열린 마을장터에 수강생들이 직접 숲속도서관 디자인안을 선보이는 부스를 마련하였다. 세가지의 디자인 대안에 대한 평면도 및 조감도 패널을 전시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설계안에 대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 펜으로 글을 적을 수 있는 패널 공간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작은 화분을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여 디자인 대안 선택에 주민의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했다. 디자인 장터에 특히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숲속도서관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림 3-8〉 주민참여 디자인 장터

이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종 디자인안이 선정되었는데, 디자인장터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수정작

업을 통해 디자인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일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더욱 중점을 두고 수정한 사안은 ㉠ 대상지가 어린이 대상으로 활용될 공간인 만큼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할 상황을 방지하는 안전대책 확보, ㉡ 어린이들이 생태 체험 활동을 풍부히 하도록 어린이들의 시선과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큰나무와 낮은 관목 등이 적절히 혼합된 녹지공간을 제공, ㉢ 어둡고 음침했던 옥상 분위기를 밝고 생생하게 변화시키고, 어린이들이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벽면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작업 진행 등 3가지 측면이었다.



〈그림 3-9〉 최종디자인안

(5) 숲속도서관 개소식(7월 11일)

7월 11일, 복지관 옥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옥상녹화 한평공원이 개장되었다.

‘마을 속 아이들의 문화 놀이터’란 테마로 어린이 대상의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된 이곳에서 5·6단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어린이들이 숲속도서관에 대한 희망을 발표하고, 떡과 다과를 나누며 그동안 진행되어온 과정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그림 3-10〉 숲속도서관 개소식

새로 조성된 숲속도서관에 문헌정보를 전공하던 대학생이 학교장학금으로 받은 200만원을 후원하여 책장 및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서선정 및 도서배치, 도서관 운영에 대해 조언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다.

2009년 7월 개관한 숲속도서관은 애초에 단지 내 중앙화단의 커뮤니티디자인 진행이 어렵게 되자 이 사업을 위해 조달되었던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디자인의 의도와 대상이 보다 명확해지게 된 결과를 낳게 된다. 복지관 옥상공간이 도서관으로 구축되면서 복지관 차원에서도 마땅한 활동방향을 찾지 못했던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후 복지관은 기존의 물탱크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작은 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서울시 작은사업에 재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것이 채택되어 2011년 11월에 실내 숲속도서관으로 재개관을 하게 되었다.

3) 공동체활동의 출발

숲속도서관이 2009년 7월 개관된 이후,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던 계층은 초등학생이었으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숲속도서관을 무대로 ‘숲속기획단’과 ‘영화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처음에 복지관이 숲속도서관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였지만, 이용주체인 어린이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이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의도하였다. 이에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활동으로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숲속지기’를 모집하게 되었고, 이들은 주로 초등학생과 어머니들, 그리고 대학생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에 참여하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학점이수가 목적이라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고 구성원의 변동이 심하여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던 초등학생들은 봉사활동과 놀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봉사 개념도 충분히 학습되지 않아 숲속지기로서 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

〈표 3-3〉 숲속도서관의 특성

항 목	내 용
재원조달	도시연대(1차) 서울시 작은사업지원(2차)
사업기획	복지관 주도 도시연대 : 재원 활용을 위한 공동논의
논의의 이슈	도시연대의 재원 활용 방안 숲속도서관 홍보 및 활성화 공간활용을 위한 논의
이용대상의 변화	아동중심에서 미취학 영유아 중심으로
숲속지기 특성	초등생, 어머니 중심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중심(주로 5·6단지를 제외한 지역 거주자)

그러다가 2011년 11월, 복지관 옥상에 있던 물탱크실을 개조하여 숲속도서관의 추가 열람실로 활용하는 등 숲속도서관을 재개장하면서, 복지관은 기존의

숲속지기 체계를 새로 일신하고자 했다. 숲속지기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좀 더 어린 연령의 영유아들이 숲속도서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독서실에 영유아 놀이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온 어머니들이 숲속지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집하게 된다. 이에 복지관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도서관 사서’라는 슬로건을 담은 안내벽보와 플랭카드를 걸고 어머니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으며, 특히 영유아 공동육아모임인 ‘난마마’에서 활동하던 어머니들에게 숲속지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했다. 특히 복지관 실무진(2011년 당시 이한나 팀장)이 난마마와 숲속지기 모임을 함께 관리하면서 두 모임 간 연계를 활발히 고민하였다. 아이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대상연령대가 3세에서 5세 사이인 난마마 이후의 보육에 대해 고민하던 부모들이 새롭게 교육 및 놀이의 공간으로 숲속도서관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이에 숲속지기 활동에 참여하게 된 영유아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지인들에게 숲속도서관과 숲속지기 활동을 홍보하고 북카페에 홍보자료를 상시적으로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섬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의한 숲속지기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첫 아이가 7살 때 난마마 중간에 참여해서 여기 복지관 활동을 시작하다가 난마마 담당하시던 복지관 팀장님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도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기 숲속도서관 만들거야. 니네가 숲속지기 할래?’ 라고 제안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1차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맞아서 시작을 했고요 나름대로 아이들은 자신들이 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아직은 무개념이긴 한데, 왔다갔다 하면서 적을 둔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씨

숲속지기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대(평일 낮)에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어머니들과 함께 온 영유아로 변화함에 따라, 숲속도서관의 이용대상은 기존 초등학생에서 미취학 아동으로 그 폭이 확장되었다. 지역사회의 초등학생과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고 의도한 것이다. 주변 지역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길벗어린이도서관과 초등학교 도서관들이 있지만 어머니와 영유아가 학습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켜 주었다는 차원에서 숲속도서관이라는 공간의 특성이 점차 형성되었다.

쉽터와 같은 역할? 앉아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는대거나 잠깐 한 두 시간 텀이 있을 때. 뭘가 먹으면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도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주위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애들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오○○ 씨

복지관은 숲속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와 어머니가 참여하는 문화제와 영화제, ‘곰든벨’ 퀴즈대회, 미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2011년에는 버블쇼와 마술쇼를 중심으로 하는 숲속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지역사회에 숲속도서관의 존재를 알리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노력하였다.

4) 공동체활동의 경과

인터뷰에 참여한 숲속지기들은 숲속도서관의 관리운영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숲속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계층이 초등학생에서 영유아로 확장되고, 중학생들도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관리를 어렵게 하는 미묘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 숲속지기에 참여하는 어머니들과 유아들이 도서관 열람실 두 곳 중 한 곳을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다른 곳을 독서열람실로 활용하면서, 도서관을 이

용하는 초등학교생들의 독서활동을 지도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저는 우리 아이랑 같이 숲속지기 사서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규칙은 저쪽 방은 (도서 열람실이라) 장난감은 못가지고 놀고 장난감은 이 방에 가지고 와서 놀아야 되요 그런데 엄마가 사서라 제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우리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근데 규칙이라는게 애매해서 다른 초등학교생 어린이가 와서 ‘왜 애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우리는 안되요?’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굳이 도서 열람실로 가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래도 ‘그 쪽에서 놀아라’ 하는데요

김〇〇I 씨

초등학교 아이들은 (유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당연히 놀고 싶잖아요 더욱이 고학년생들은 ‘여긴 도서관인데 왜 장난감을 갖고 노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요 저는 그 아이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네들 입장에선 여기는 도서관인데 꼬마들이 와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생들이 (유아를 위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제지할 수도 그냥 놓아 둘 수도 없지요 여기는 길쭉도서관의 취지하고는 달라 애매해요 차라리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도서관을 만들면 아예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놀이도 있고 유아책이 많으니까 엄마들이 책 읽어줘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서관이긴 하지만 (취지가) 너무 애매하죠

정〇〇I 씨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숲속도서관을 또래의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미묘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서관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숲속지기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서관 관리의 원칙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작은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문젯거리라고 한다면 큰 애들이 이 방에 와서 열람실의 블라인드를 닫고 놀아요 그런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숲속지기들이 직접 통제를 못해서) 복지관 선생님(복지관 실무진)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블라인드를 올리라고 얘기해요 이거 가리고서 놀면 안되죠 중학교 가기 직전 아이들도 무서운데, 여자애 남자애 함께 와서 노는 경우가 있어요 큰 아이들이 왔을 때 도서관 공간이 워낙 작아서 서로 살짝 부딪치는 문제들이 가끔씩 있어요

오〇〇 씨

셋째, 숲속도서관에서 봉사자인 숲속지기과 이용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율운영을 강조하다 보니,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생들과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과 목적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도서관 활용의 견해차에 따른 작은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복지관 옥상공간인 숲속도서관의 출입구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쪽을 닫고 저쪽으로 나가야 애들이 뭘 들고 가는지도 보이거든요 ‘어? 재 분명히 책 빌려갔는데?’ 근데 그냥가 그럼 불러서 얘기를 또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문이 여기 따로 있으니 앤 지나가 버리면, 저희는 저기서 안보이거든요 그런거 애매해요

정〇〇I 씨

넷째, 2012년, 복지관이 숲속도서관 옆의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옥상수영장을 개장하였을 때 5·6단지과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였다. 이 행사는 애초에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숲속도서관과 복지관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옥상수영장에 방문하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기본적인 이용규범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어린이들의 독서 분위기를 장려해야 하는 도서관의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옥상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문제와 종종 발생하는 소음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수영장에 쓰인 물을 배수할 때 경로당 옆 수로로 물이 빠지니까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배수구가 아니라 저쪽 바닥으로도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오○○ 씨

바닥이 미끄러워요 어린이들이 맨발로 나갔다가 살금살금도 아니고 후다닥 뛰어가는데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해요 특히 머리가 무거운 어린애들이니까 뒤로 넘어지지요

오○○, 정○○ 씨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끼리는 들만 모여도 종종 싸움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어머니들이 아이들 때문에 소리내면서 싸우기도 해요 복지관 옥상이 아파트 한가운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성질내는 것도 이해가 가죠 아이들이 수영장에 들어갔다 물에 젖은 채로 도서관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어머니들이 앞에 있어 숲속지기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수돗물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옥상에 물을 뿌리면 독서실 내부로도 물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제지하지도 않고 난 정말 저거 왜 만들었나 정말 이해가 안가요

정○○ 씨

복지관은 숲속도서관과 옥상수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옥상수영장의 배수 시간을 오후 8시 이후로 정하기도 하였다. 주변 주민들이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자 옥상수영장 이용대상을 9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규범을 설정하

고 있다. 숲속지기들은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옥상수영장은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긍정적인 도구로 또는 도서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시설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사실 이거(수영장) 반대인데요 이게 숲속도서관이잖아요 아이들이 여기에 책이 있는 것도 모르구요 도서관 이용의 취지에서 저는 사실 이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이들이 안오니까 아이들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 취지하고 이 도서관의 개념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〇〇 씨

숲속지기들이 한 번 모여서 이야기를 한거는 처음 시작했을 때였고 중간에도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오게하는 좀 다른 좋은게 없을까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물놀이장을 하게 된거죠 아이들이 오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오게 되었죠

김〇〇 씨

이렇게 상반된 시선들은 숲속지기 어머니들을 인터뷰하면서 옥상수영장은 “계절상품”_(오〇〇 씨)으로 정의되고 향후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등 발전적 논의로 전환되었다. 반면 이러한 논의들을 주제로 복지관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인지하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 마련)해야죠 해야지.

오〇〇 씨

저희는 얘기를 했을 때 안들어 줘도 상관은 없어요 말 그대로 봉사니까, 난

내 주어진 시간에 봉사를 하고 가는거지 내가 굳이 여기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왜 이걸 안해주냐 따질 수는 없잖아요 건의는 할 수 있지만요

정〇〇1 씨

이러한 문제는 숲속도서관의 이용대상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이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는 목적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즉, 영유아들은 주로 숲속지기 어머니들과 함께 방문하여 주로 놀이와 보육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은 독서와 공부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학생들을 위한 책도 구비해 놓아, 이들도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서로 다른 연령 대의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은 공간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식에 상이한 의견이 발생하는 것이다.

방화동 주민자치센터 옆의 길곶도서관은 2층과 3층으로 유아와 어린이 이용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다들 일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도서관이고, 유아와 초등학생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 전용에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도 누가 뭐라 할 것도 없고요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 각자 조용히 책을 읽는 거니까 장난감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정〇〇1 씨

숲속도서관을 관리·운영하면서 문제를 인식해온 숲속지기들은 이용대상자 및 공간 활용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미취학 아동 대상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으로써 두 공간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분리한 도서공간으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그냥 아예 공간을 그냥 놔두느니 구분을 해서 차라리 유아방을 확실

하게 두어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7살 아이까지 놀 수 있고 책도 읽고요 아기들이니 떠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열람실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책만 딱 보게끔 구분을 지으면 운영이 수월할 것 같아요

정〇〇1 씨

저는 차라리 건너편 열람실은 초등학생용으로 만들고 이곳은 유아책과 장난감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면 수월할거 같아요 저기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책을 읽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엄마들이 자유롭게 애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하는 거지요 방이 두 개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현재는 건너편 열람실이 관리가 안되서 빈방으로 고학년 아이들이 노는 용도로 밖에 활용되지 않거든요

정〇〇1 씨

또한 숲속지기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과 지역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소극적이지만 향후 여력이 되었을 때 청소년 문제에 대한 자원봉사 의지가 있었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에 국한되어 있던 관심의 시선이 지역사회 문제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가)여기 오니까 개네들이 보이는거죠 저도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와서(보니) (중학생들이) 둘 셋이 와서 사발면을 하나 들고 여기서 음악을 듣든, 놀든 간에 그런걸 보면 제가 이걸 안했으면 그 눈을 볼 수 없었던거(췌).

정〇〇3 씨

근데 저는 그 애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갈데가 없잖아요 애들이. 커튼을 내려놓는 것은 불안하지만, 사실 이해는 되요 여기 와서 같이 노래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어떨 때는 춤도 추고 하는걸 보면, '아 재네들이 얼마나 저렇게 하고

싶을까'...(중략)...애네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네들을 좀 관리해 주시는 누가 있고 애네들을 잘 교육시키고 애네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한테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 (중략)...우리 동네 차원에서든 개네들한테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생각만 (하는거죠) 근데 애네들을 여기서 몰아내면 (애네들은) 어디로 가야하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 씨

제가 품앗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요 처음 시작할 때 혼자 생각으로는 포부만 있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해 가지고. 여기는 새터민들도 많고 경로당도 많고. 그때 그런 얘기해 했었어요 애들 연습시켜 가지고 경로당가서 노래도 하게 하자. 근데 그게 잘 안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딪힌 것도 많지만 우리가 품앗이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돌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김○○ 씨

숲속도서관은 2011년 11월 재개관 이후 자원봉사자들인 '숲속지기'를 통해 운영과 관리의 일부가 미미하나마 역할 분담되어 있다. 숲속도서관에 대한 이용과 관련하여 숲속지기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관리 운영 주체인 복지관과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마 우리 숲속지기끼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어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없어요 아직 (숲속지기가) 다 정해진 것 같지도 않고요 (숲속지기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가끔 바뀌기도 하고요

오○○ 씨

감사한데 이게 지금 좀 더 연결된 뭔가가 되면 좋겠는데, 솔직히 난마마할 때도 그렇고 이거 할 때도 그렇고 되게 감사하지만 답답함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솔직히 저만 해도 받는데 익숙하고 내 아이와 내가 즐거우면 되고 그거지, 내가 나서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통이 중요한데 우리끼리도 소통을 하지는 않아요 만나면 아는 사람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하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복지관) 자원은 많은데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김○○ 씨

복지관 선생님들이 나서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얘기는 다 해요 그래서 몇 개 해서 실현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때도 난마마 활동을 마치면서 우리들끼리 이야기했던 것이 큰애들(1학년 입학하는 애들)은 난마마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개네가 안하면 둘째아이들 끼리만 할 수가 없으니까 졸업장을 주고 끝내자고 합의가 되서 끝났어요 대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입학하는 1학년 아이들이 커서 2학년 쯤 되면, 개네가 6, 7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야기가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었죠 큰 아이들은 어떻게든 얼굴을 안다고 복지관에 와서 인사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때는 그 끈을 못 만들다가 (나중에) 숲속지기 말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첫 번째 할 거예요’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뭔가 끈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오○○ 씨

숲속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방화6복지관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2011년 11월 재개관 이후 어머니들의 자원봉사 공동체인 ‘숲속지기’를 통해 관리의 일

부가 미미하나마 역할 분담되어 있다. 숲속도서관에 대한 이용과 관련하여 숲속지기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관리 운영 주체인 복지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장)가 미흡한 실정이다.

2012년 5월 진행되었던 숲속지기 간담회를 통해 숲속도서관의 공간활용 및 프로그램에 관해 함께 논의하면서 옥상수영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숲속지기가 큰 역할을 했다.

(옥상수영장은) 제가 제안을 했는데, 마포 보육정보센터에서 가설수영장을 설치했었는데 우리 아이와 함께 이용을 해봤거든요 그 공간이 작은데도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이 옥상 공간을 조성해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옥상수영장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때는 5월이고 만들어 시작한 시기는 올해 여름이에요

김○○ 씨

5) 공동체활동의 성과와 한계

현재 숲속도서관은 초기 단계에 지나게 되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에 봉착해 있다. 숲속도서관의 이용자뿐 아니라 관리운영주체인 숲속지기와 복지관 차원에서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인 규범에 대한 합의가 불명확하다. 게다가 숲속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계층도 명확하지 않아 영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동시에 활용하고 있어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이용방식이 매우 상이한 이들 계층 사이에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다. 2012년 여름에 옥상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했을 때 도서관을 활용하는 주요계층인 어린이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에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숲속도서관의 활용 방안과 관리에 대해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의견 교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숲속도서관을 현재처럼 여러 이용계층이 활용하는 장소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보다 한정된 계층을 위한 장소로 변화할 것인지를 비롯하여 여러 변

화의 경로를 열어두고 있다. 단 복지관에서 숲속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하정민 사회복지사가 언급하듯, 향후 숲속지기 간담회를 비롯하여 도서관의 운영과 이용의 당사자들이 상호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하리라 예상된다. 단, 도서관 운영과 활동의 중심을 숲속지기 중심으로 전환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저는 복지관의 지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숲속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나중에 지역의 어린이를 우리가 같이 보호하고 키워보자는 개념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해요. 주민들의 고민과 생각이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 아이들을 모아 책을 읽는 좋은 문화도 함께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 뭐 그 안에는 내 아이도 있겠지만, 그냥 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도 같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복지관의 노력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혹은 ‘저렇게 합시다’ 제시하기 보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초석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초기의 세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정민 사회복지사

6) 시사점

(1) 조직의 성격

숲속도서관에서의 숲속지기는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서’활동으로서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로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자녀를 돌보면서 봉사까지 가능한 활동의 특성상 소모임은 반사적·반공적 성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숲속지기 봉사자들은 지인들의 소개나 복지관 등의 홍보를 통해 자원하는 구조로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소수 구성원들 간의 모임이 있을 뿐이며 숲속지기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숲속지기 활동은 자원봉사자 개인으로 보면 자발적이고 주도

적이라 할 수 있으나, 조직을 기획·관리하는 공동체적 측면에서는 비자발적이며 의존적인 조직으로 보여진다.

(2) 지역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하지만 숲속지기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지역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지역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 따라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해당 공동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복지관의 역할

복지관은 숲속도서관을 기획·관리·운영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채용조달 및 기획과정에서 도시연대 등의 전문가 활동 조직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커뮤니티디자인사업을 실천해 왔다. 특히, 환경변화를 매개로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해 시도했던 중앙화단 개선사업이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다른 형태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을 해왔다. 복지관은 숲속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자원봉사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숲속도서관 이용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주민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관리운영 과정에서 숲속지기들과의 소통의 과정이 미흡했고 피드백에 있어 소극적이었다고 판단된다.

(4) 숲속도서관의 공간과 정체성

숲속도서관의 이용 대상은 영유아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취학아동과 중등생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간활용에 혼선이 발생함으로써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관 또한 이를 인식하고 향후 관리 운영에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의 분할로 인하여 숲속지기가 통합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

다. 자원봉사자들은 숲속지기 활동을 통해 숲속도서관의 시스템적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을 관리주체인 복지관과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숲속지기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숲속도서관의 정체성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욕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난마마

1) 커뮤니티디자인의 배경

원래 난마마는 방화6복지관이 주관하여 2005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의 자녀교육과 양육 소모임으로, 초·중학생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부모교육 모임이 발전하여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 모임은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부모교육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자녀교육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활동을 지속하였다. 난마마 모임은 2010년 초부터 5~6세의 미취학 유아와 어린이 대상으로 육아품앗이 활동을 통한 공동육아소 모임으로 전환된다.

복지관에서는 난마마 공동육아공동체의 운영과 관리를 가족복지사업팀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공동육아소모임은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다른 지역사회 공동체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형성해주며,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디자인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커뮤니티디자인 활동은 조직체계 상 지역사회조직사업팀이 담당하는 업무로 구분되어 있다. 난마마 공동체활동이 커뮤니티디자인의 일환으로 기획·운영되기는 하지만 복지관의 조직체계 상에서 육아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족대상의 지원사업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체계와 실제업무 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 공동체활동의 출발

2010년 초에 결성된 1기 난마마 모임은 5-6세 중심의 미취학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규회원을 모집하여 활동하다가 이들이 다음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해체된다.

2011년 2기 난마마 모임이 결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복지관은 난마마 신규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지만 처음에는 3인의 회원이 가입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새로 가입한 3인의 회원들이 직접 네이버 인터넷포털의 사이버카페인 ‘맘스홀릭’과 같은 육아사이트에 글을 올려 회원모집에 힘쓰고 주변의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하면서 대부분의 회원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회원들은 4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와 어린이, 이들의 부모로 구성되어, 몇몇 구성원의 변동이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1기 난마마 신입회원은 복지관이 주도하여 모집했으나, 2011년부터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원모집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복지관)가 초기에 홍보를 했었지요 지역 아파트에 안내지를 돌리고 포스터와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서 홍보했었고 회원들도 ‘맘스홀릭’과 같은 유명한 인터넷카페들을 활용해서 홍보했어요.. 회원들도 알음알음.. 회원이 5월, 6월에 10명으로 확 늘어나게 됐었죠 지금도 회원들이 중간에 빠져서 충원해야 하면 어머님들이 온라인카페나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모집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한나 팀장

그때(맘스홀릭 카페에 글을 올릴 때) 난마마라고 올리지 않고 방화동에 ‘아이 품앗이’라고 있는데 아이 있는 분들 중에 모일 사람들 모이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난마마라는 기존 공동체 모임이 있더라고요

김○○2 씨

저도 작년(2011년) 9월에 맘스홀릭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게시판에 올려져 있던 글이 아니라 ‘어린이집’ 관련해서 검색을 했더니 거기 답글에 이런 품앗이가 있다고 연락하시라고 연락처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정○○○ 씨

참여자 대부분은 복지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며, 4세에서 6세 연령의 자녀를 둔 30대 중후반의 어머니들이었다. 이들은 전업주부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맡기지 않고 자녀에게 또래 친구들을 만들어 주면서 직접 양육하는 의도로 난마마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저도 작년에 애들이 4살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6-7년을 살았지만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어서 또래 엄마와 같은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이나 다른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은 목적이 제일 컸어요.

서○○○ 씨

저는 어떤 다른 것을 기대했다기 보다 아이에게 친구를 사귀게 한다는 목적으로 왔죠.

김○○○ 씨

난마마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비슷한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이들이 함께 공동체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육아품앗이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으며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엄마들 성향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보육원에 보내고는 있지만, ‘내가 애하고 씨름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 키워보자’ 해서 버티고 버티고 하다, 결국 이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들 그런 이유로 이렇게 다니고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집에서 키워보자 하는 엄마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모임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에 다니고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애를 받아서 여기 오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열성적으로 다니게 되요. 만남이 좋고 하니까요.

정〇〇2 씨

성향의 문제도 있어요. 저는 친한 엄마들한테 같이 가보자고 권유를 막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서로) 성향이 비슷한거 같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난마마 활동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냐고' 하고 말지, 자기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난마마 참여자들은)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오래 남게 되는거 같아요.

정〇〇2 씨

3) 공동체활동의 경과

난마마 참여자들은 스스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는 등 복지관의 세부적인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재원 마련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난마마 회원들은 공동체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행 등에 복지관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지만, 기본적으로 난마마가 자발적인 공동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식비로 만원 거둬서 지금까지 (활동비로) 쓰고 있어요.

서〇〇1 씨

원래 모임이 품앗이로 하다 보니 엄마들 자체적인 힘으로 하는 거죠... 엄마들이 계란 삶아오고, 감자도 삶아오고 집에서 싸오니 (활동비가)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서〇〇2 씨

누구 혼자 맡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제시한 의견들을 통합해서 기획해요 대부분 서로 (육아 관련) 정보를 알음알음 알아와서 이런 데가 좋다더라 하면 함께 가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와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지요 당번을 정해서 활동했던 적도 있고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활동했던 적도 있지요

서〇〇2 씨

복지관은 난마마 모임에 주로 신입회원 모집 홍보를 비롯하여, 지원과 조력 (연 1회의 차량지원, 간식비 제공 등), 모임장소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참여자들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모임장소가 공동육아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존재가 공동육아 활동을 묶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복지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활동에서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을 복지관에서 보완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바라지만, 또 그것이 우리 모임의 취지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품앗이 활동이기에 엄마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도중에 미리 계획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복지관에서 대신해주면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엄마들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차량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서〇〇2 씨

장당 제공이 굉장히 큰 힘이 되요 장소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가질 못했을 거예요 저도 주변에 이런 품앗이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대해 되게 부러워해요

서〇〇1 씨

친구한테 이 품앗이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자기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 주변에서 사람을 모아서 해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으기도 힘들고 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힘들어서 나중에는 잘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서〇〇1 씨

복지관 없이 품앗이를 한다는 건 상상이 안되요 뭐든지 구심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복지관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이런 활동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정〇〇2 씨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난마마 모임에 대한 역할은 모니터링과 관리로 제한하고, 사업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복지관은 앞으로 공동체활동에 대한 조력자로서 운영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난마마의 예전 기수 모임과 지금 만들어지는 기수모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냥 모임이 생겼다고 (그러한 모임과 조직에 필요한 노하우가)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사회복지사들이 아니라 난마마 구성원들이 메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개입해서) 조력이나 자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한나 팀장

4) 공동체활동의 성과와 한계

난마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또래와의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으로써 난마마 활동을 “행복”(서〇〇1 어머

니), “제2의 인생”(서○02 어머니), “힐링캠프”(김○02 어머니), “편안함”(정○02 어머니)이라고 표현하며 자신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저는 아주 좋았어요 작년에도 좋았고요 작년부터 큰애가 아무데도 안다니다가 일주일에 두 번 여기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리게 되요 일단 친구를 많이 몰랐다가 여기 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집에서 시시하게 느꼈던 일들도 여기서 하면 달라요 그냥 스티커 붙이기 하나를 하더라도 애들 반응이 여기선 너무 좋아서 항상 그날만 기다리게 되지요 또 저는 활동에 참여했던 작년에 둘째가 어려서 문화센터 다니기 힘들었는데, 여기에 다니고부터 문화센터는 아예 안다니게 되요

서○01 씨

모두 유치원에 가지 않고 이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고정된 인원이 만나잖아요 들쭉날쭉하더라도 매번 같은 얼굴을 보니까 애들에게 정서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누구 형 누구 누나 하면서 얘기도 해야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인데, 일상적으로 같이 만나고 같이 놀러가고 하니깐 좋아하더라고요

정○02 씨

난마마 모임 시간에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을 행복해 해요 저도 난마마에 참여하기 전에 집에만 있을 때는 사람들을 많이 몰랐거든요 여기 오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생기고 진짜 많아졌죠

서○01 씨

저도 전에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난마마 모임이 ‘제2의 인생’ 같은 거예요 완전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

과 집만 오가다가 모임에 참여하고 나서는 동네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딸도 친구를 사귀지만 엄마들끼리도 친구가 되고 완전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요

서〇〇2 씨

난마마는 힐링캠프예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문화센터는 오가는 시간도 한참 걸리고 수업도 50분 동안 잠깐하고 엄마들도 밥만 먹고 헤어지는데, 이곳은 오래 놀 수 있고, 엄마들끼리 유대감이 좀 남다른 것도 있고요 아이가 낯가림도 없어져서 저한테는 여러모로 되게 좋아졌어요

김〇〇2 씨

난마마 활동 참여자들은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0년 1기 난마마 활동 참여자 중에서 숲속도서관의 사서인 숲속지기 활동에 참여하는 등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다른 공동체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들도 생겼다.

아이들이 6살, 7살이 되면 여기에서 피아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요 아동심리 이런 것도 하니까 관심이 가게 되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구요

서〇〇1 씨

전혀 몰랐어요 복지관에 이런 활동을 하는지도 몰랐고요 북카페도 여기를 와서 이걸(난마마) 하면서 알게 되거지.

서〇〇1 씨

여기 숲속도서관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 안가니까 다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주로 1시에서 3시까지 딸하고 와서 숲속지기를 하고 앉아서 책도 읽어요 아직 글은 못 읽지만 도서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서〇〇2 씨

아이가 다섯 살 때 육아품앗이를 시작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들도 수다도 떨고 여러 가지로 복지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아이가 크니까 품앗이를 그만 두게 되었어요. 그 후에 여기 숲속도서관이 생겨서 참여했는데, 여기가 ‘엄마와 아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서’라는 개념이 매력적이었어요.

김〇〇1 씨 (난마마 활동에 참여했던 숲속지기 참여자)

복지관 실무진 역시 난마마의 자발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난마마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지역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는 활동의 초기로 지역사회에서 공동육아활동에 대한 경험이 보다 더 축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실 우리가 지역 팀 안에서 이 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동아리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난마마의 수준은 지역의 활동을 찾아서 하기 보다 그룹 안에서 서로의 좋은 문화들을 공유하는 수준이라서 이게 과연 지역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난마마 모임이 다른 모임과 다르게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탈퇴할 가능성도 많고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에서 커다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서, 복지관에서 모색하는 난마마의 비전은 그냥 장기적인 그림일 뿐이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 활동을 통해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모임 안에서 스스로 조금씩 다른 영역들로 확대해 나가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한나 팀장

5) 시사점

난마마 활동은 지역사회 어머니들이 공동육아를 품앗이활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인 소모임이다. 이들은 공동체활동의 기획·재원조달·운영에 자발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숲속지기 활동과 같은 자원봉사 모임보다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소극적이기도 하다. 이는 난마마 모임이 지닌 고유한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모임의 목적이 일생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미취학 유아와 어린이들에 대한 공동보육으로 어머니들의 관심과 신경 또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임의 목적 자체가 공동육아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특정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활동에 대한 목표와 서로의 역할에 대해 생각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난마마에 참여하는 이들은 공동체활동을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복지관이 모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업과 프로그램 진행에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할 경우 복지관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복지관이 공동육아활동 전반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면서 모임의 질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부담감을 가지기도 한다.

공동육아를 진행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무척 중요하다. 다양한 계기로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육아모임의 경우 주로 구성원들의 가정을 번갈아 가며 모임을 유지하거나, 외부활동공간을 대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활동을 지속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난마마 모임의 경우도 해당 지역에서 공동육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여성들이 여타 지원 없이 자체적인 활동으로 유지될 수도 있었던 모임이 복지관의 공간 대여와 지원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복지관은 난마마 모임을 조직하기 위해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담당하였으며, 활동 초기에 모임의 성격과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 또한 모임이 자체적인 운영의 틀을 갖춘 이후에는 되도록 모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복지관은 소모임의 틀이 갖추어진 후에는 난마마가 자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조적인 입장을 유지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등 공동체의 발전 과정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4. 북카페

1) 공동체활동의 배경

복지관은 숲속도서관과 다소니 활동이 안착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을 폭넓게 매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5·6단지 주민이나 복지관프로그램 참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교류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복지관 건물은 단지 내부에 위치해 있어 외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었다.

6단지 상가는 방화역에 인접하여 지리적 조건이 나쁘지는 않지만, 주요 이용 계층이 5·6단지 주민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한 상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상가건물 중에서 단지 내부에 면해 있는 측면은 특히 쇠락하여 비어 있는 점포가 많았다. 이에 복지관은 해당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SH공사와 계속 접촉하고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지 내외 주민들이 저렴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으로 북카페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복지관이 지상으로) 2층짜리 건물인데 공간이 별로 없어요 1층은 거의 사용

할 수가 없고 지하와 2층만 사용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공간이 물리적으로 너무 협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 외부로 눈길을 돌리게 되고, (6단지상가의) 그런 공실 점포들을 복지관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한나 팀장

(처음부터) 북카페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6단지상가에 공실이 있어서 공간을 활용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략> SH공사와 이런 공실 점포를 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계속 접촉을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SH공사가 북카페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방화 6단지에서 복지관과 같이 해보자고 해서 북카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한나 팀장

우리는 북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 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커피만 팔고 책만 읽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면 좋겠다, 우리는 복지관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한나 팀장

복지관은 북카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지주민들이 놀이터, 벤치, 노인정 등 단지 내 공공공간을 이용하면서 발생했던 상습음주와 다툼과 같은 고질적 문제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가와 단지가 마주보는 통행로는 6단지상가의 폐업한 점포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집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밤이 되면 가로등도 없어, 위험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단지주민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에 복지관은 북카페를 지역사회에서 단지 내부 공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서도 보다 치안이 안전하고 음주와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소로 형성하고자 했다.

놀이터에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는데, 나오시는 건 괜찮은데 아침부터 약주를 드시거든요 병도 깨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간다 그러면 거기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때문에 다치거나 이럴까봐 막았던 거죠

정OO 씨

(단지 내에서) 빈번하게 음주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아닌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드나들 수 있고, 단순히 6단지 주민뿐 아니라 외부 주민들도 들어오는 매개가 될 수 있었죠

이한나 팀장



〈그림 3-11〉 북카페 개소식과 이용모습

2) 공동체활동의 출발

SH공사와 복지관은 방화동의 보육환경 개선과 어머니 휴게공간 제공 등의 목적을 띠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여행(女幸)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고, 2010년 5월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로 북카페를 개장하기에 이른다.

공가이거나 치킨집, 술집이었던 예전엔 그곳을 지나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가더라도 돌아서 가게 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북카페가 생기고 나서는 안전하게 돌아다니며 집으로 갈 수 있고 <중략>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지요 예전에는 단지 안에 사실 가로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공간인데, 북카페의 경우 밤에도 실외등을 켜놓으니 가로등의 기능을 대신하여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점도 있고, 또 여기(북카페)가 ‘여행(女幸)’이라고 해서 여성들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예전에는 술 드시고 놀이터에서도 술 드시고 뛰 정자에서도 술 드시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는데. 여기는 그거에서부터 좀 분리된 안전한 공간. 또 아이들이 이렇게 언제나 와서 책을 읽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한나 팀장

SH공사는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임대료, 1년간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 공하였고 이를 통해 적립된 수익금으로 북카페의 재정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었다.³⁾ 또한 위탁운영을 맡은 복지관은 북카페 근무자를 선정하고 임대료 유예 기간 동안 마련한 수익금으로 북카페를 활용한 지역 복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인근 지역 주민 가운데 선정된 북카페 근무자는 북카페의 관리 및 운영뿐 아니라, 복지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안내하면서 북카페가 지역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북카페 근무자는) 북카페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면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거나 주민에게 설명해주시기도 해요 (주민들도) 이곳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저희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 많이 물어보거

-
- 2) 복지관 이한나 팀장에 따르면 개장 초기에는 SH공사의 ‘여행 북카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왜 여자만 들어와야 되냐?’, ‘카페인데 왜 남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냐?’라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여성과 동행해야 출입할 수 있는 카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남성들은 카페 밖 테라스나 거리에 서서 북카페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 3) 북카페의 상가 임대료와 관리금은 없고, 상가 공동 관리비와 근무자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든요 <중략> 북카페에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용한다’, ‘엄마들이 어떻게 이용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러한 의견을 근거로 운영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한나 팀장



〈그림 3-12〉 북카페의 문화프로그램

3) 공동체활동의 경과

북카페 개장 후 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지관은 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도서 대여 회원 가입비 면제와 이용금액 적립 혜택, 음료 시음회 등 북카페의 문턱을 낮추는 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음악회, 특강 등 지역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북카페는 커뮤니티 활동의 장으로 자리하기 시작한다.

SH공사가 (북카페를 만들면서) 목적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영구임대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 6, 9단지 주민들이 이런 문화적인 기회나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 6, 9단지 주민 분들은 그 시간대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 빼고는 별로 없는 거예요 30, 40, 50대 분들은 다 근로를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다 나가계시고 ... 그러다 보니 우리가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났고, 오히려 대신해서 학부모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은 있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균형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6, 9단지 주민들에 대한 적립 혜택이나 홍보나 시음회 뭐 이런 걸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하고 음악회나 이런 걸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데.

이한나 팀장

우선은 6단지에서 사용을 좀 안 하시다가 저희가 작년 3월부터 도서대여를 시작했거든요 홍보를 했어요 6, 9단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도서를 대여할 수 있게 했더니, 그 이후로는 조금 북카페도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6단지 주민들이 회원 가입을 조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⁴⁾

이한나 팀장

초기 SH공사는 북카페가 여성을 위한 문화 공간 외에도 단지 내 소외계층 초·중등 자녀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 등을 병행하기를 기대했다.⁵⁾ 이에

4) 북카페 도서 대여 회원 가입자는 전체 420명이고, 이중 6단지 거주자는 67명이다(2012년 8월 현재).

5) “이곳에서는 앞으로 연극놀이 체험 등 전문가 무료교실, 영상물 상영, 요일별 테마카페, 독후감

2010년 지역 하모니카 연주단 ‘하모니’의 공연을 필두로, 2011년에는 분기별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다. 2011년 하반기 3회 음악회때는 규모가 커져 아파트 단지 내 공터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화행사는 지역주민에게 북카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오가며 들르는 사랑방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복지관 입장에서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이 되었다.

북카페는 거의 매일 살다시피 이용하는 편이지요 애들 학원 보내놓고 기다리면서 이야기하면서.

김OO 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찾았도 저렴하고 거기 책도 구비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에 책도 읽고 또 엄마들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 애들 교육적인 정보도 주고 받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 또 가까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복지관에 (아이들을) 보내놓으면 교통량도 없고 위험한 요소도 없고 몇 분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OO 씨

학원 끝나고 제일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지요 ... 저희는 엄마들이 약속을 하게 되면 북카페에서 보자고 하는데 막상 여기 말고 다른 동으로 가잖아요? 그런 데가 없어요 (다른 동의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 입구나 마트 입구, 큰 데, 찾기가 되게 어려운 곳에 있어요

허OO 씨

모집, 지도력 양성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 오진희 기자, “SH공사, 방화6단지 임대아파트 내 북카페 운영,” 아시아경제, 2010년 5월 18일 자.

우리 아이가 이 거리를 통해 학원을 다니거나 하지 않으면 이곳에 올 일이 별로 없죠 이곳에 북카페가 생김으로 인해 생협이 생기는 등 훨씬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것 같아요

김002 씨

특히 북카페는 사적인 모임을 갖던 기존의 장소로서 개인의 가정집에 비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편의성이 높고, 놀이터가 아닌 외부 공간에서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객의 대부분이 자녀를 동반한 어머니라 북카페 내부로 유모차를 들일 수 있고, 근무하는 관리자와 이용객들이 약간의 아이들의 소란에는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지역 내 기성 카페보다 애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사생활 보호문제로 내 공간을 공개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가장 좋은 건 북카페에서 만나는 거죠 북카페가 1순위죠 ...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같은 엄마들이고 학부모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떠들거나 해도 그걸 이해하는 면이 많아요

김002 씨

북카페는 참 그런 점이 좋아요 다양한 책들이 많고 만화책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 일반카페라면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북카페는) 얘기 있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잃어버릴까봐 실내로 갖고 들어와 세워두고 안에 들어가서 앉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편리하죠

김001 씨

4) 공동체활동의 성과와 한계

연례 발간되는 방화6단지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카페는 복지관의 커

뮤니티디자인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공간이며, 또한 ‘젊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⁶⁾ 북카페는 저렴한 음료와 쾌적한 공간 제공 및 도서 대여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문화 행사를 유치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한 거점으로 발돋움하였다.

몰랐던 프로그램도 알게 됐고, 참여도 하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갓집 체험이라고 있었어요 1박을 하고 오는 체험이 있었는데, 아주 성황리에 마감이 됐었어요 아주 저렴하게 잘 이용했고 후기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김002 씨

다른 지역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자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불러와요. 이쪽 지역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부러워해요

김001 씨

또한 북카페라는 공간에 대한 신뢰는 복지관 행사 및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복지관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나 기대하는 바가 커지게 되었다. 더불어 북카페는 같은 상가 2층에 위치한 다소니와 공간적 연계를 통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에 이르렀다.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가 보통 복지관이라 그러면 낮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반 문화센터나 이런데 보다는..

문00 씨

복지관이라 그래서 6단지만 관리하는 곳인줄 알았는데 강서구 방화동 다 적

6) 설문자 298명(무응답 160명) 가운데 응답자 126명(74.6%)이 북카페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10,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연구 보고서』, pp. 76~79, 85).

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옛날에는 복지관 하면 ‘들어가고 되나’ 했는데 요새는 그냥 막 들어가요

정OO 씨

더불어 복지관 실무진도 커뮤니티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공동체활동의 계기이자 바탕으로서 물리적 공간 조성의 의미와 당위성을 느꼈고, 뿐만 아니라 공간 조성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주민의 인식이 변화하기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구나’. ... (지역과 관련된 복지)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아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떤 음악회를 한다 하더라도 북카페가 있어서 음악회를 진행하는 거랑 그냥 지역 음악회를 진행하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를 거 같아요 북카페를 통해서 북카페에 있는 회원들한테도 알리고 ... 어떤 컨셉을 정하고 뭐 이것을 통해서 문화를 매개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들을 제공하는 것이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커뮤니티디자인이라는 것은 공간의 변화라는 게 주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주민들을 모이게 하고 모아주고 이런 장소도 제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정민 복지사

복지관 차원에서는 일반 주민들을 끌어 낼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게 ‘커뮤니티디자인’인 것 같고요 ... ‘장소’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게 또 ...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서의 장소가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나, 이제 복지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는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그런 물리적인 공간, 변화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어쨌든 지

여주민들이 참여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저희는 늘어나길 바라는 차원에서 커뮤니티디자인 사업들을 하는 거니까.

이한나 팀장

5) 시사점

북카페는 복지관이 갖고 있던 물리적 공간의 협소함을 해소하여 공간을 활용한 지역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려던 실무진의 의지와 SH공사와 서울시의 도움으로 장기 미입대된 6단지 상가의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던 ‘여행 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취지와 부합하면서 동시에 6단지 상가 거리의 슬럼화 현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 1층 상가 2개 공간을 합쳐 북카페를 조성하게 된다.

북카페는 복지관 외부에 위치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복지관이 갖는 선입관을 배제한 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저소득층을 위해 특화된 기관’이라고 여기는 선입관을 넘어서 긍정적인 인식을 향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카페는 도서 대여, 어머니를 위한 특강, 분기별 음악회 등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저렴한 이용금액과 유모차 실내 보관, 아이들의 소란함을 이해하는 등 이용환경 측면에서도 지역 내 기존 카페와는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북카페를 자주 이용하면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복지관 프로그램의 이용은 복지관과 북카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은 북카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나아가 복지관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초석이자 적극적인 홍보의 장이 되었다.

더불어 복지관에 있어서 북카페의 조성은 새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요컨대 지역 복지 서비스의 측면에서 복지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북카페의 사례에서 복지관은 공동체가 자생할 수 있

는 재정적, 공간적 환경의 조성과 운영 보조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해왔다. 이는 복지관이 지역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행정적 처리나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같은 간접적 보조적 역할을 통해서도 지역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물리적 공간 조성과 공동체활동의 새로운 관계 맺기의 일환이며, 지역 주민과 더욱 밀접한 스킨십을 나눌 수 있는 공간적 가능성의 토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5.다소니

1) 공동체활동의 배경

다소니의 시작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였다. 복지관이 ‘커뮤니티디자인 사업’으로 기록한 첫 번째 사업인 숲속도서관에서 얻은 교훈은 복지관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과 공간, 공간과 프로그램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⁷⁾ 즉 숲속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공간의 제공이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일환임을 직시하게 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을 매개로 지역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2) 공동체활동의 출발

복지관은 숲속도서관 사업에서 공간의 제공 및 구비가 지역 복지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복지관 건물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기에 복지관 외부에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였다.

7) 2장 1절 숲속도서관 부분 참조

(복지관이) 2층짜리 건물인데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1층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고 지하와 2층만 사용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 외부로 눈길을 돌리게 되고 (6단지 상가의) 그런 공간들을 복지관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한나 팀장

인근 6단지 상가에 장기간 쓰이지 않은 공간이 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관은 6단지 상가를 관리하는 SH공사와 새로운 공간 활용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맺어진 SH공사와의 협의체는 다소니 조성 후에 북카페 조성 까지 확장되어, 복지관 인근에 커뮤니티 공간 두 곳을 개장하는 데 이른다. SH 공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미입대 되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상가에 주민들을 끌어들이 수 있게 되었고, 복지관 입장에서는 지근거리(도보 3분)에 공간을 마련하여 접근성과 운영 관리에 편의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에 복지관은 2009년 6월 6단지 상가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2010년 2월 개장하기에 이르렀다.

3) 공동체활동의 과정

숲속도서관과 같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과 놀이를 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비해 지역 주민에게 공간 대여 사업은 낯설었다. 복지관 내 소모임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예상했던 복지관은 홍보의 미비와 이용 실적 저조로 인해 이용 대상을 비영리 지역 주민 모임으로 확대하였다.⁸⁾

다소니의 경우에는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2층이라는 물리적

8) 2010년 복지관에서 실시한 설문 가운데 다소니 인지도에 관한 항목에서 설문자 298명(무응답자 28명) 가운데 207명(76.7%)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10,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연구보고서』, p. 83).

인 한계 때문에 처음 만들어지고는 복지관 소모임 중심으로 좀 이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복지관하고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 그마저 활용이 잘 안되어 아예 주민 모임에 대여를 해야겠다 해서 작년(2011년)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모임을 위해 거기를 대여하면서 주민모임들이 생기게 된 거죠. 원래 그냥 그룹으로 있었던 것들이 어머니들이 ‘그러면 우리 영어 공부를 해 볼까?’, ‘우리 애들은 수학 공부를 같이 시켜 볼까?’ 이러면서 그런 모임들이 하나씩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이하나 팀장

2011년 다소니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던 초기에 다소니 이용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한다. 공간 대여 주민은 이용 후 각자 자리 정돈을 하는 정도의 암묵적인 명시되지 않은 규칙이 있었는데, 한 주민이 오물을 치우지 않고 퇴실하는 일이 생겼다. 이에 복지관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리 상태를 확인하던 것을 담당 직원으로 조정하고, 공간 대여 후 발생한 일을 다소니 내부 칠판에 자세히 공지하였다. 이후 정리 상태에 관한 문제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작년(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확대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어떤 룰이 없이 이것을 그냥 사용하게 하니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부터 애기 똥 기저귀 까지 다 넣어버리니, 이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 한번은 누군가 애기가 쉬를 해 놓고 갔는데 치우지 않고 간거예요 그것을 공익요원이 청소하러 갔다가 발견하게 된거죠 ...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이 청소했는데 지금은 ... 매일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 작년에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 칠판에다가 그 사건을 낱낱이 기록했었거든요 몇월 몇일에..(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그 글을 다 본거죠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나?’ 뭐 이렇게 좀, 누가 했는지 결국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시니. 자각을 하신 거죠 ‘아, 이 공간이 깨끗하게 사용해

야 하는 공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이후부터는 좀 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이하나 팀장

더불어 다소니는 공간의 대여뿐 아니라 간단한 다과를 위한 4인용 탁상과 의자, 세면대가 구비되어 있고 탄력이 있는 고무 매트를 바닥에 깔아 좌식 생활에 익숙한 이들을 배려하였다. 다소니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대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의 형식을 띤다. 대여 방식은 3개월 단위로 접수를 받는 정기 대여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접수를 받는 수시 대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8월 현재 두 개의 영어 스터디 모임과 중국어 스터디, 독서 활동, 수학 공부 등 5개의 정기 대여와 6단지 반장 회의, 생협 모임, 근처 학원 리셉션 등 다양한 수시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공동체활동의 성과와 한계

커뮤니티공간으로서 다소니의 추진 배경에는 실내 공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다. 특히 정기대여를 신청한 모임의 주민은 대개 영유아를 둔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 환경과 관련된 모임이 많았다. 가령 자녀교육을 위한 모임이거나, 어머니들끼리 직접 선행 학습 스터디를 하고자 했다. 이러한 모임이 다소니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활동이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곳이 없을 때는 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못했고, 엄마들끼리 한집에 모여서 하다가 여기를 알게 되고 여기가 더 낫겠다 싶어서 이곳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한 두 명이라도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부담이거든요

문OO 씨

아무래도 애들 유치원 끝나고 또 모아서 어느 집을 간다는 것도. 한둘이 아니고
정00 씨

특히 다소니를 이용하는 주민은 자신이 신청한 시각에 정해진 시간만큼 대여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공간에 대해 일종의 약속과 규범을 설정하면서 다소니를 새로운 형태의 공적 공간으로 받아들인다. 공간을 대여하여 활용한 이후에는 자신이 이용한 만큼 정리하고 공간활용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소니 공간이 카페나 노래연습장의 폐쇄된 공간과는 다른 진지한 공동체활동의 장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간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여기는 놀러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가 공부하러 오는거고, 빌리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 안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잡담을 하지 않아요 공과 사가 정확히 구분된 느낌이죠

문00 씨

늘어질 수 있는 주부의 삶에 약간의 긴장을 주는 곳일 수도 있고 처음에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막 수다 떨다가도 우리 수다만 떨지 말고 녹슬지 않게 공부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거든요

김003 씨

여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할당된 시간이 있으니 수다를 떨더라도 할 건 하니까
정00 씨

지역 주민들은 다소니가 학습공간이자 일정한 긴장감을 주는 공간으로 이해하면서⁹⁾ 공동체활동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이를 통해 다소니의 공간에 대

9) 2012년 8월 20일 다소니 이용자 그룹 인터뷰.

한 애착을 표현하고 있다.

내가 너무 많이 쓰면 남들이 못쓸까 봐 미안해 하시는 오히려 그런 입장이 있으시거든요 그냥 따로 빌리러 와도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비어 있냐'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세요

하정민 사회복지사

더불어 물리적 공간의 조성 또는 구비가 공동체활동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배
기할 수 있다는 의식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차
후 공간 조성과 관련된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해, 다소니와 같은 공적 공간의 효
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공간이 없었을 때는 우리도 집에만 있었어요 놀이터 아니면 집이었지
그런데 복지관이 생기면서 애들이 하나씩 (활동에 참여)하고 다소니가 생기니
까 우리 엄마들도 '빈 공간(다소니)이 있대.. 우리도 활용하자. 우리 모일까?' 하
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갖게 되고 저는 환경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OO 씨

(다소니에서 공동체활동 후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체적으로 달라지죠
그전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죠 사실 홍보를 아무리 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뭐가 나오면 '어 이거 한대' 내가 안하더라도 '이
거 한다니 가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관심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관심
도라는 건 내가 그만큼 해서 나름의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관심도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어 괜찮아 가봐' 하면서

문OO 씨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이 있기 때문에 모임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것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하정민 복지사

5) 시사점

육아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방화3동 어머니들의 능동적인 태도로 인해 다소니 공간은 활발히 활용되었다. 특히 방화3동의 ‘순위별 행복한 지역사회 모습’을 묻는 설문에서 ‘자녀의 안전한 환경’과 ‘자녀양육’이 매년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지역사회 자녀교육과 양육 문제가 관심의 대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¹⁰⁾ 이와 더불어 그 동안 발전되지 못했던 지역사회 어머니들의 자아실현과 자기교육에 대한 열망이 다소니라는 커뮤니티공간을 통해 자발적인 모임으로 변화하였다.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여서 이리로 오는 거지. 그런데 이곳이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문OO 씨

다소니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면, 엄마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정민 복지사

10) 방화6단지 ‘순위별 행복한 지역 사회 모습’ 항목에서 2010년에는 ‘자녀의 안전한 환경(148점)’, ‘깨끗한 환경(134점)’, ‘지역주민의 관계(94점)’, 2011년에는 ‘자녀의 안전한 환경(210점)’, ‘자녀 양육(110점)’, ‘깨끗한 환경(88점)’으로 나타났다(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10,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연구보고서』, pp. 36-39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11,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연구보고서』, pp. 40-49).

다소니 개장 3개월 후, 같은 상가 1층에 저렴한 가격의 음료를 제공하고, 오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공간인 북카페가 개장했다. 북카페는 다소니를 비롯한 복지관 프로그램 및 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하면서, 다소니가 추구했던 지역 주민 사랑방의 역할을 일부분 나누어 가졌다. 북카페가 상가 1층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아 인지도와 이용 편의성에서 앞서고 있으나,¹¹⁾ 북카페의 개장은 다소니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도서 대여와 카페 등 늘 열려있는 공적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북카페에 반해 다소니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순차적으로 혼재하는 공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북카페는 오히려 다소니의 공간적 정체성을 공고히 해주는 순기능을 갖는다. 공동체활동의 씨앗이 북카페와 같은 자유로운 발화의 공간에서 생겨나고 퍼져나간다고 볼 때, 정해진 시간에 차분히 이용하는 공간인 다소니는 자발적인 지역 모임의 목적과 효용에 집중한 공간적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는 공동체활동의 발아와 활착을 위한 공간적 매개로서 다소니가 계발하고 성취해야 할 좌표를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공간(다소니) 자체의 운영이, 어느 시간에 누가 쓰고 어느 시간에 누가 쓰고 뭐 한 달에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되면 이 청소를 누가, 어떤 모임들이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심지어는 정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 공간 자체가 운영되는 게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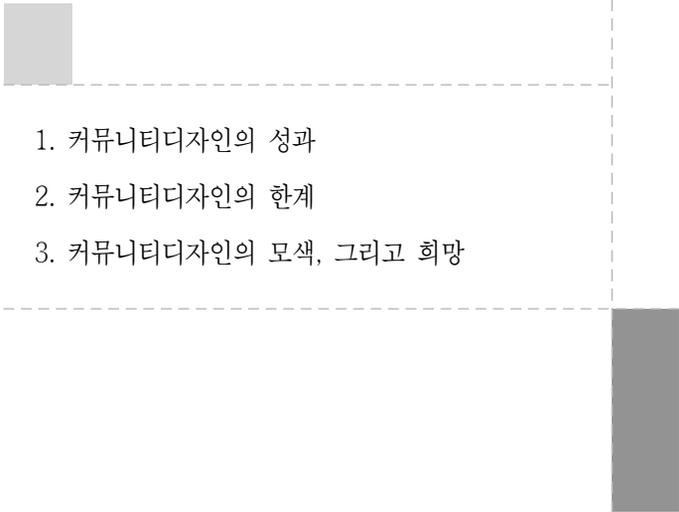
하정민 복지사

복지관에서는 다소니의 운영과 관리 측면까지 지역 주민의 자치에 맡기는 구상도 조심스레 개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주민의 공공 공간 운영의 참여는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11) 설문자 298명(무응답 160명) 가운데 응답자 126명(74.6%)이 북카페의 이용 경험이 있고, 9명(5.3%)이 다소니의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10,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연구보고서』, pp. 76~79, 85).

수 있다. 공동체활동의 거점으로서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만큼이나 지속가능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 초석은 커뮤니티 공간의 경험과 공동체활동의 참여에서 쌓기 시작할 수 있다.

IV . 커뮤니티디자인의 성과와 한계 , 그리고 희망

- 
1. 커뮤니티디자인의 성과
 2. 커뮤니티디자인의 한계
 3. 커뮤니티디자인의 모색, 그리고 희망

IV

커뮤니티디자인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희망

1. 커뮤니티디자인의 성과

방화5·6단지에 뿌리내린 커뮤니티디자인 활동은 지역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불러왔다.

첫째, 지역사회에 숲속도서관과 2곳의 한평공원, 북카페와 다소니와 같은 커뮤니티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에게 지역의 의미가 치안과 안전이 확보된 공간, 밝고 활기찬 장소로 변화하였다. 커뮤니티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진 거점들이 단지 곳곳에 형성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위험하거나 어두웠던 장소들이 보다 안전해지고 밝아지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긍정적인 변화였다. 예를 들어, 삼정초교 어린이통학로 한평공원이 조성되기 이전, 이 계단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이 쌓여있고 음습한 분위기를 풍기어 꺼려지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마을지도를 통해 보다 나은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상상에 동참을 하고, 한평공원 조성과정에서 공동벽화를 그리는 등 함께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린이들 차원에서 이 공간 자체에 대한 의미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게다가 가로등이 설치되어 이 곳이 보다 밝아지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로 여기게 되었다. 또한, 단지상가에 북카페가 조성되면서 예전의 불안하고 어두웠던 곳이 안전하고 활기찬 곳으로 달리 인식되

고, 5·6단지가 아닌 지역주민들도 즐겨 찾는 장소가 되면서, 단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의미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에 동참하고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심어주었다.

둘째, 복지관이 지역복지를 지원하는 기존 역할에 더하여, 주민들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역량을 형성하는 커뮤니티디자인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관은 애초의 태상적 한계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잔여적 복지를 대신해주는 역할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임대단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커뮤니티디자인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체형성을 통한 공동체활동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의 거점으로 변모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자 모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주민들이 커뮤니티디자인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깨달아가고 서로 토론하면서, 일부 주민의 경우에 국한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발적인 활동을 모색하면서 함께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지역의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숲속도서관의 숲속지기들은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지역사회가 어린 세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 위해 해주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이 현재는 복지관 실무진들과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지 않아 갑갑해 하고 있으나, 향후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이슈들이 토의된다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커뮤니티디자인의 한계

방화5·6단지 커뮤니티디자인은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경험 이 축적되고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포착되고 있긴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들도 분명 존재한다.

첫째, 커뮤니티디자인을 통한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주로 주간에 모이는 전업주부들이 중심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부부와 같이 공동체활동이 절실한 이들이 참여할 여지가 많지 않아서 지역사회 공동체가 이들의 참여를 어떻게 모색하고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활동이 청소년과 새터민, 실업자, 한부모가정, 노인 등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 보다 풍부한 실험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뿐 아니라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모색하는 주민들은 아직 소수에 국한된다.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은 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기획 및 운영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또한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셋째, 여러 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들 간의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이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친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동체 차원의 기획과 운영을 통하여 공적인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때라야 공동체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아직까지는 개별 공동체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 복지관이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복지관이 주민들에게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주고 제안해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3. 커뮤니티디자인의 모색, 그리고 희망

방화5·6단지의 커뮤니티디자인의 과정들은 기존에 지역사회가 방화5·6단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편견들을 변화시키고 5·6단지 주민들뿐 아니라 단지 바깥의 주민에게까지 지역사회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간접적인 증거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단지 내의 커뮤니티 장소들이 풍부해지고,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대상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이에 참여하는 단지 외부의 지역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지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인근 아파트단지의 젊은 어머니들이 숲속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숲속지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방치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복지관에 기존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새로운 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지 안과 바깥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활발한 활동이 늘면서, 주민들 사이의 상호교류와 소통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쉽게 고립되기 쉬운 임대단지가 지역사회의 열린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방화5·6단지의 마을만들기 과정은 복지관 주도로 지역사회의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실무진의 헌신적 태도로 기획·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과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면서, 마을만들기의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단계로서 적절하게 시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열려 있는 태도로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어,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될 실험들과 전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방화5·6단지에서 시도한 커뮤니티디자인의 경우, 주민 관심을 환기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했다. 특히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가면서 마을만들기의 전반적인 방향과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조직적 기반으로 복지관이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단, 현재까지 발전해온 과정을 한층 더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 차원에서 커뮤니티디자인 사업의 과정과 그 결과물을 어떻게 자신의 문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구체적인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08,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보고서』.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10,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연구보고서』.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11,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연구보고서』.
- 아시아경제, 2010.5.19, “SH공사, 방화6단지 임대아파트 내 북카페 운영”.
- MacIntyre, Alasdair, 1981, *After Virtue*.
- Sayer, Andrew, 1992, *Method in Social Science : A Realist Approach*, Routledge.

서울연 2012-PR-42

**커뮤니티디자인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방화 5·6단지 커뮤니티디자인을 사례로**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2년 11월 3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ISBN 978-89-8052-935-3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